

결혼 안하고 애도 안낳고...

제주 출생아 7월까지 2325명으로 1년전보다 4.3% 감소 혼인은 1552건으로 14.3% ↓... 역대 최저치 경신 전망

제주지역의 올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역대 최저치였던 2020년의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특히 혼인건수 감소로 10세 미만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6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1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도내 출생아 수(잠정)는 232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3%(105명) 감소했다. 한달 평균 332명꼴로, 연말까지 현재 추세로라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작년(3989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 혼인건수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7월까지 1552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견줘 14.3%(258건) 감

소했다. 작년 한 해 혼인건수는 2981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밑돌았는데, 올해 두 자릿수의 감소를 보이는 현 추세로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저기록을 다시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제주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20세 미만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9월 기준 도내 주민등록인구 67만 6079명 중 10세 미만 인구는 5만 8739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6만 9161명) 처음 6만명대로 떨어진 후 줄곧 6만명 이상을 유지하던 10대 미만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6만명 밑으로 감소한 것이다.

10~19세 인구도 7만320명으로 7만명을 간신히 유지했는데, 10년 전인 2011년 말(8만4228명)에 견줘 16.5% 줄었다. 2011년 57만6156명이던 주민등록인구가 10년동안 10만명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981년 9723명이던 도내 출생아 수는 작년 절반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고, 같은기간 혼인건수는 4294건에서 2981건으로 1000건 이상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20대 미만 인구가 감소한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2011년 7만2580명에서 올해 9월 10만 9438명으로 10년 동안 50.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2.6%에서 올 9월 16.2%로 높아졌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전'

제주지역 2018~2020년 3년간 총 542건 적발

올들어선 3월 현재 58건

제주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반 사유 중엔 미신고, 업계약, 다운계약 등이 있는데 특히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의 경우 부동산가격 거품의 주원인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게 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1만3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 올들어 3월까지는 3220건이 적발됐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8년(236건)과 2019년(193건)에 견주면 감소세지만 올

들어 3월까지 58건이 적발돼 작년의 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욕탕궤 집단감염 방역 '불안'

4곳서 30여명 코로나 확진 방역당국은 동선 파악 집중

제주지역에서 목욕탕을 연결고리 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도내에서 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데 이어, 11일 오후 5시 기준 7명(2973~2979번)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확진자 7명 중 5명은 도내 확

진자의 접촉자, 1명은 타 지역 입도객이며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를 연속 한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연휴 사이 집단감염이 잇따라 나타난 점은 우려스럽다.

도내 목욕탕 중 한 곳인 제주도 사우나에서 연쇄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0일 서귀포시 중앙목욕탕에서도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또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제주도 삼도2동 '동인스파월드 사우나' 여탕과 제주도 이도1동 '탐

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여탕에도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나타난 목욕탕 집단감염 규모는 '제주시 사우나'로 이름 붙은 삼도사우나가 28명, '서귀포시 사우나'로 명명된 중앙목욕탕이 7명이다. 또 기존 집단감염인 '제주시 유흥주점 4'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와 이 집단의 총 감염자 수는 9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현재 추가 확진자와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장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는 등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이호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전날 술잔을 즐겼던 흔적이 가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쓰윽~ 버리고 가면 누가 치우나"

이호해수욕장·탐동광장 쓰레기 범벅... 주민들 "비양심행위에 열불"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네요. 쫓쫓..."

9일 새벽 6시 이호해수욕장엔 해가 뜨고 어둠이 걷히면서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한 해안가 풍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상객들이 밤사이 술잔을 벌인 뒤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고 가면서 백사장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각종 술병과 종이컵, 배달음식에 과자봉지 등이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었고, 사용했던 돛자리도 눈에 띄었다. 모래속엔 담배꽂이가 가득했고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에선 악취가 풍기면서 주변으로 까마귀가 물러들거나 해충들이 꼬이기도 했다.

백사장 인근 테크와 인도에도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었다. 썩터로 마린턴 인도 위 의자도 각종

오물들로 인해 더럽혀진 상태였다.

이날 청소소에 나선 주민 A(63)씨는 "매일 쓰레기장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 기가 찬다"며 "비양심-이기심 행동으로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호해수욕장은 매일 오전 12명, 오후 6명의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 마을 자생단체들의 도움까지 받으며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치우는 당시만 깨끗해지고 다음날 또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매일 해수욕장 일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은 2t 안팎에 달한다.

이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술집과 음식점 등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하며 갈 곳 없어진 취객들이 도심권

과 인접한 해수욕장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또 선선해진 날씨까지 겹치며 이 곳을 찾는 노상객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지 한달여가 넘었지만, 사실상 단속이 손을 놓은 탓에 이 같은 무질서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개방한 제주도 탐동광장도 노상객들이 남긴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탐동광장에서 환경정비를 하던 미화원 B(70대)씨는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쓰레기는 가져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월 중순인데... 폭폭씨는 제주

지난 10일 최고기온은 31.8℃... 오늘 비날씨 전망

10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10일 제주지역 일 최고기온은 30℃를 웃돌며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다.

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지역 일 최고기온은 31.8℃(체감온도 32.9℃)를 기록하며 기상청 집계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2016년 10월 2일 기록된 32.1℃다.

같은날 서귀포는 27.7℃(체감온도 30.8℃), 성산 28.8℃(30.6℃), 고산 28.7℃(31.4℃)의 분포를 보이며 여름 날씨를 보였다.

한편 12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며 선선해지겠다. 12일 낮 최고기온은 23~26℃로, 11일(28~32℃)보다 5~6℃ 가량 낮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20~70mm다. 남

부과 동부, 산지 등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다.

특히 기상청은 북동풍과 남동풍이 함께 유입되고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남부와 동부, 산지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며 체감온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조속 9~14m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의 희망, 청소년이 행복한 제주

2021년 즐겁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체험 수기 공모

사업 목적

- 학생, 학부모의 학교폭력 경험 극복 사례 또는 동아리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상 정립
- 교사 및 교직원들의 학교폭력예방 우수 사례 또는 학생 인성지도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제로 문화 확산
-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한 도민들의 개인활동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

공모내용

- 작품분야: 수기
- 공모기간: 2021. 7. 19. (월) ~ 10. 31. (일)
- 결과발표: 11월 10일 (개별통지)
- 공모대상: 1) 사회단체 및 전 도민 2) 교사 및 교직원, 학생
- 공모주제
- 1) 사회단체 및 전 도민
 - 사회단체 또는 사회기관으로서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한 사례
 -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로서 자녀의 바른 성장을 이끈 사례
- 2)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교직원, 학생
 - 교사 및 교직원으로서 학생 인성지도를 통해 즐겁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 수기
 - 학생으로서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및 이를 극복한 사례

응모요령

- 작품분량: A4 3~5쪽
- 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릿말·꼬리말: 각각 15
- 글자 모양: 바탕체, 제목 20p, 본문 12p, 자간 0
- 문단모양: 문단 위0, 문단아래 0, 줄 간격 160
- 제출서류: 공모 수기 원고 또는 hwp 파일
- 작품접수: 우편 또는 메일 접수
- 접수처: 우편: 우)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평동 5길 3 제주지방검찰청 503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 메일: bumbang4975@naver.com
- 문의: ☎ 064-758-4975, 729-4578

시상내역

구분	제주지방검찰청 심사대상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심사대상
사회단체 및 전 도민	대상 시상금 1,000,000원	최우수상 시상금 500,000원
교사 및 교직원, 학생	대상 시상금 1,000,000원	최우수상 시상금 500,000원

심사

- 심사 기준
- 1) 경험, 활동, 프로그램 등의 구체성
- 2)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노력 정도
- 3)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의 변화 정도
- 4) 공유 및 확산 가능성 등

시상식

- 일시: 2021년 11월 10일 이후 수상자 개별통지 예정 (추후 공지)
- 장소: 추후 결정
- 시상: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범죄예방을 위한 한마음 대회 시상)

기타

- 수기 공모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강화
 -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홍보 협조
 -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모대회 홍보 강화
- 수상작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미담사례 공유 및 확산

주최 및 주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검찰청